

2025년 경기북부 지역문화 특성화 공모지원 심의평

- 경기도는 인구나 면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을 끼고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 매년 분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부지역의 지역문화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공동체로의 역할은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심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살아있고, 기들을 도와주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느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특성이 빛이 발하도록 더 많은 공동체 노력에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이번 심의는 단순한 프로젝트 실행을 넘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브랜드화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심의기준은 운영주체의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공익적 접근 그리고 사업의 활용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축으로 심사 하였음.
- 경기문화재단의 2년차에 접어든 지원사업으로 신청 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이 사업이 창작자와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가 타지역 보다 적은 경기북부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29.

심의위원 박문수, 박소현, 박완열